

어나더닥터, 중기부 ‘딥테크 팁스’ 선정

정창희 대표 “티-그리드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

(AI 덴탈 솔루션)

AI 기반 초정밀 색상 측정
치과 보철물 제작과정 혁신
車·뷰티 등 적용 분야 확대

인공지능(AI) 덴탈 솔루션 스타트업, 어나더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Deep Tech 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딥테크 팁스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나더닥터는 이번 과정에서 지난 3월 프리팁스를 시작으로 디딤돌 연구 개발(R&D) 과정을 거쳐 9월 딥테크 팁스까지, 6개월 만에 주요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하는 이례적인 성과로 눈길을 끌었다.

어나더닥터는 AI 기반 초정밀 색상 측정 기술을 통해 치과 보철물 제작 과



정의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핵심 솔루션 ‘티-그리드(T-GRID)’는 치과와 기공소 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색상 소통 오류를 해결하고, 보철물 재제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치과 보철물(인공치아) 제작 과정은 여러 단계에 직면해 있다. 치과에서는 고가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지만, 촬영 시점의 조명이나 각도 등에 따라 색상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부정확한 이미지가 기공소로 전달되면, 기공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수작업에 의존해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색상 불일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 치아와 색상이 다른 보철물은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

제작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해 치과와 기공소의 매출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어나더닥터의 T-GRI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우선 고가의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 앱과 전용 컬러체커를 이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손쉽고 정확하게 치아 색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 이미지가 ‘컬러 캘리브레이션 엔진(Color Calibration Engine)’을 통해 서버로 전송되면 AI 알고리즘이 빛, 각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보정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색상 값을 추출한다.

분석된 정확한 색상데이터와 디지털 채색 가이드는 웹 플랫폼을 통해 치과와 기공소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원활한 소통과 정밀한 보철물 제작을 지원한다. 어나더닥터는 T-GRID 솔루션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보철물 재제작률을 90%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GRID의 핵심 기술력은 다수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어나더닥터는 치과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 인테리어, 뷰티, 미술품 복원 등 초정밀 색상 측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 기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어나더닥터의 기술력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어나더닥터는 지난 8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추가로 유치한 바 있다.

정창희 어나더닥터 대표(사진)는 “이번 딥테크 팁스 선정은 어나더닥터의 기술력과 비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9월 MVP 출시에 이어 오는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한 뒤, K-메디컬의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 ‘미모 바이 마몽드’ 수분·클렌징 라인업 확대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에서 신제품 6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이자 수분 결광에 특화된 ‘로지-히알론’ 제품군에서 3종, 새롭게 선보이는 ‘민트-AHA 클렌징’ 제품군에서 3종을 선보인다.

로지-히알론 신제품(사진)은 화장 전 피부를 정돈하는 대형 면봉 형태의 마스크 ‘로지-히알론 볼 마스크’, 입술 보습을 관리하는 다기능성 립밤 ‘로지-히알론 글로우립 세럼’, PHA를 함유한 슬리핑 팩 ‘로지-히알론 슬리핑 마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민트-AHA 클렌징 제품군은 ▲민트-AHA 클렌징 오일 인 워터 ▲민트-AHA 필링 젤 ▲민트-AHA 팩 클렌저 3종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키엘’ 총판

미용·피부의료 시장 공략 속도

동국제약은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소재 기업인 메디랩과 ‘마데키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데키엘은 스킨부스터 제품이다.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과 메디랩의 고순도 키토산 기반 리퀴드 투 젤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갖췄다.

동국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미용·피부의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관계자는 “마데키엘은 과학적 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력 본질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며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트렌드 리포트’ 정기 발간

CJ올리브영이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리포트’를 정기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트렌드 리포트는 해마다 1억 개 이상 쌓이는 올리브영 내부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획된다. 올리브영은 K뷰티 소비 유형을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콘텐츠로 선보인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십니까?’는 기후 분석 리포트다. 최근 5개년 치 내부 데이터와 외부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결합했다.

절기상 가을인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변화 속에서 K뷰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기온, 습도 등 기후가 K뷰티 소비자들의 쇼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초격차 생산능력 뽐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CMO 브랜드 ‘엑셀런스’ 강조
CDO 서비스 주제 세션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종합 박람회로,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연속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오는 2032년까지 확보 예정인 132만 4000 리터 수준의 초격차 생산능력, 삼성 오가노이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임상시험수탁(CRO)부터 위탁생산(CMO)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 등을 알린다.

특히 최근 공개한 신규 CMO 브랜드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엑셀런스’를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런스는 고객에게 일관된 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사 이틀째인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서비스를 주제로 한 세션도 진행한다. 이태희 항체배양PD팀장(상무)이 연사로 나서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임상시험 계획 제출까지’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사

신약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스폰서십 활동도 펼친다. 전시장 부스 상단에는 행잉 배너를, 하단에는 플로어 배너를 설치하고 회사의 비전과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콜마비엔에이치, ‘이승화·윤상현·윤여원’ 각자 대표체제 구축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 사업 전개

콜마홀딩스 자회사 콜마비엔에이치가 경영 쇄신을 단행하며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실현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경영 체제와 함께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콜마비엔에이치 사옥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를 열고 이승화 사내이

사, 윤상현 부회장의 각자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의결은 전문성을 강화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콜마비엔에이치를 그룹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승화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이끈다. 이 대표는 CJ제일제당 경영리더, CJ부사장, CJ프레시웨이 상무, 베인앤컴퍼니 이사 등을 역임한 전략 전문가다.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는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콜마비엔에이치의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 부회장은 2026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임 이승화 대표이사와 윤여원 대표이사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너지를 강화해 콜마비엔에이치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윤여원 대표이사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다. 윤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애경산업

프로액티브 맨 2in1 샴푸

애경산업은 고급 헤어관리 브랜드 ‘케라시스’에서 남성용 ‘프로액티브 맨 2in1 샴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간편한 사용을 선호하는 남성 소비자를 위해 샴푸와 컨디셔너 기능을 하나에 담고 있다.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텍스판테놀, 살리실릭애씨드 등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화장품 보고를 완료해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티트리, 진저, 맥주효모 등 자연 유래 성분을 처방한 것도 특징이다. 모발과 두피를 관리할 수 있고 비듬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

동아제약이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네덜란드산 유기농 생강과 이탈리아산 유기농 레몬을 7:3 비율로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원료를 씨앗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하는 방식을 적용해 생강의 알싸함과 레몬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뤄내면서도 두 원료 본연의 풍미와 영양을 최대한 살렸다.

특히 물, 설탕, 인공첨가물,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100% 유기농 착즙 원액으로만 구성됐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 CCP)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됐다.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은 개별 막대형 파우치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물이나 탄산수를 섞어 다양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